
第9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社會福祉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日時 1991年12月20日(金) 午前10時

場所 社會福祉委員會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立勤勞者厚生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地方公社江南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1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

審査된案件

○ 報告事項 ... 1面

1. 서울特別市立勤勞者厚生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2. 地方公社江南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4面
 3. 1991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 32面
-

(10時 15分 開議)

○委員長 車奉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4次 社會福祉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보고사항

○委員長 車奉五;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議案擔當 나 와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案擔當 李覺來; 議案擔當 李覺來입니다.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1991年 12月 2日 議案番號 第154號 地方公社江南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1991年 12月 18日 議案番號 第216號 서울特別市醫療保險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이 議長으로부터 當 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습니다. 이상 報告를 드렸습니다.

1. 서울特別市立勤勞者厚生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長 提出)

(10時 27分)

○委員長 車奉五;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立勤勞者厚生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이 條例案은 우리 전번 52回 臨時會때 論議되었던 案입니다.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現場을 한 번 踏查해서 深度있는 分析을 하고 다시 再論해서 檢討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李秉直 委員님과 卓炯春 委員님, 또 張柱昊 委員님 세 분이 現場에 나가셔서 現地踏查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報告를 李秉直 委員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直 委員; 李秉直 委員입니다. 방금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卓炯春 委員, 張柱昊 委員, 本委員 셋이 踏查를 해 본 結果 거기에 모든 施設이라든지 현재 副食이 나오는 것은 별로 瑕疵가 없습니다. 단, 조금 引上하는 問題에 있어서 현재 거기에 들어있는 收容者들 견해는 조금 올려줌으로써 副食이 좀더 잘 나오지 않는가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거기 실무진한테 內容을 알아보니까 값을 조금 引上시켜 준다고 해 보았자 副食이 더 잘 나올 수는 없지 않겠느냐,

答辯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副食이 더 잘 나올 수 없다는 理由는 그 自體 內에서 그러한 메뉴표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고 當局으로부터 指示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손 치면 거기에 全 收容施設에 다 充滿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部分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집 없는 勤勞者들에게 오히려 더 聲援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本委員의 見解로는 현재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補充 見解는 우리 卓炯春 委員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車奉五; 卓炯春 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卓炯春 委員; 狀況을 같이 把握한 것이니까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懇談會에서도 얘기하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露宿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 會館을 利用할 수 있는 機會를 좀 많이 宣傳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비어 있는 施設에 露宿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조금 不合理하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市에서 그런 方向으로 좀 많이 PR을 좀 해서 그런 施設이 있다는 것을 利用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報告는 우리 李秉直 委員님 말씀으로 代替를 하고, 이것을 본인들도 그렇게 引上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李秉直 委員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각을 앉았습니다. 앉고, 단 食生活이 改善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食生活을 改善해 줄 수 있는 用意가 있는지? 引上함으로 인해서 食生活 改善을 해 줄 수 있는가?

○委員長 車奉五; 그러면 이제 保社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

도 다시 한 번 좀 해주시고 이제 質問한 內容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保社局長입니다. 勤勞者厚生施設使用料徵收條例를 改正을 要請하였습니다만 이 사안을 委員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어려운 市民 立場에서 많이 걱정해 없는 時間을 쪼개서 現場까지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勤勞者厚生施設, 그 施設에 收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90名 가까이 됩니다만 일면 季節的으로 따라서 적게 利用한 경우도 있고 그런 面도 있습니다. 그런데 政府 立場에서 또 地方自治團體 立場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의 經營的인 側面도 重要하지만 그러나 政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必要로 하고 여러 가지 共感帶가 形成될 때는 어느 水準까지는 最大限度로 보살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保社當局의 立場입니다.

委員님께서 다녀오시면서 現行 宿泊料라든가 白飯料, 沐浴料 關係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宿泊料가 200원이고 白飯料가 160원, 沐浴料가 190원입니다. 물론 이러한 돈을 내는 勤勞者 立場에서는 어려운 面도 있겠습니다만 1회 버스料金 정도 밖에 안 되는 事項이고 그것을 조금씩 이제 해서 그것을 費用으로 해서 우리 保社當局에서도 그 施設을 좀더 水準을 높인다든가 방금 卓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弘報를 할 수 있는 그런 活動費 問題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豫算當局과 다음 機會에 또 내년도에 일을 推進해 가는 過程에서 여러분들께서 關係條例를 改正해 주신다면 그 힘을 해서 저희들이 活動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신 바로 이 宿泊料라든가 이런 料金

을 올렸을 때 바로 食費라든가 이런 것이 引上이 되느냐 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主食費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당초 豫算基準에서 딱 策定이 되었기 때문에 任意로 이렇게 올리고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이렇게 條例를 改正해서 收入이 좀 많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施設에 投資라든가 주식관계 基準單價를 올린다 하는 그런 面에서 關係當局과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신 그런 힘으로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깊게 생각하셔서 委員님들께서 最小限度의 現實化하는 그런 方向에서 改正案을 提案한 바 있는 點을 勸案하셔서 많은 海諒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다른 委員님 質問 있으면 質問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質問하시기 전에 우리 張柱昊 委員님이 現場에 한 번 갔다 오셨는데 두 분이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만 現地 踏査한 內容에 대해서 簡略하게 報告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張柱昊 委員; 네, 張柱昊 委員입니다. 우리 卓委員님하고 李委員님 같이 가 보았습니다만 현재 거기 利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 하는 疑問點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宿食費 올리자 하는 것을 가지고 올려주되 그러면 그것을 宿食에 대한 질이 좀 좋아지도록 또 立行이 같이 되는지? 그건 안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豫算單價가 정해져 있기 때문예요. 저희들이 올리자고 하는 것은 基本的으로 너무나 現實하고 동떨어지는 事項이기 때문에 可能하면 이제 地方自治時代를 맞아서 施設이라든가 使用이라든가 이 經營側面에서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外國의 한 예를 말씀드리면 日本의 어

느 縣의 지사는 「地方의 論理」라는 冊子에서 우리 현에서 日本에서도 가장 훌륭한 經營側面에서 經營을 해 보자, 전 직원들이 하자고 해서 日本에서 經營系統에서 제일 우수한 企業하고 같이 經營에서 제일 우수한 機關으로 轉換한 예가 있습니다. 地方自治時代를 맞아가지고 最小限度 이런 勤勞者 福祉施設 같은 경우도 무조건 支援해 주는 그런 것보다도 조금 조금씩은 現實化해서 이런 것이 모아져서 市 全體에 하나의 그 우리 病院 관계도 있겠고 하는 그런 面으로 여러분께서도 經營側面에서 하나씩 하나씩 檢討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張柱昊 委員; 네, 말씀은 理解가 갑니다만 기왕 얼마 올린다는 것이 200%, 300% 올리면서 그 食生活의 質的 改善은 힘들다 할 것 같으면 現實에 맞게 더 올려서, 또 質的인 무언가 달라지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面이 있고 여러 가지 次元에서 두 委員님 같이 들었습니다만 하필이면 지금 物價抑制하는 이 찰나에 年末에 이 300% 올려보아야 몇 百원인데 그것을 %로 따지면 200%, 300%.....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物價라는 것이 一般 大衆的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조그마한 施設에 最大限으로 關係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구나 너무나도 現實에 동떨어지는 그런 價格에서도 物價 그것까지는 어렵고요. 다만 食生活 改善이라든지 그런 정도야 아마 張委員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우선 豫算單價라든지 確定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面으로 努力할 수 있는 것은 아까 卓委員님도 그러셨습니다만 露宿者도 뭐 많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방면으로 다른 豫算으로 다른 人力으로 다른 次元으로 支援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거기

많이 집어넣어서, 그럼 量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質的으로 좀 이렇게 하나의 規模的인 經營에서 改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面으로 努力을 하겠습니다.

○張柱昊 委員; 그래요. 그래서 보는 過程에서 말이지요, 메뉴가 적혀있는 것을 보니까 主食에 밥하고 국하고 한두 가지 이렇게 콩나물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왕 300%이상 올린다면 좀 올리면서 단 한 가지라도 追加 명분이 섰으면 하는 제 所見입니다.

○李秉直 委員;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局長님, 이 문제는 우리 몇 委員이 갔을 때 하다못해 그 인접 동네 사람이라도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施設物을 많은 部分이 비어있다는 點은 무언가 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에도 다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름에는 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겨울에도 다 차지 않았을 경우에 한참 더운 여름철에 그렇지 않아도 어지간한 사람들 다 산으로 갈 텐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問題는 今年度에는 넘기고 또 來年度에 다시 우리가 改善할 問題가 좀 있고 좀더 活性化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뜻이 있다손치면 거기에 勤務하는 職員들의 精神부터 고쳐야 되고, 무언가 努力하는 그런 次元에서 引上을 해야 되기 때문에 今年에는 저 個人 소견으로서는 이대로 引上 않고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다른 委員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尹基聖 委員님.....

○尹基聖 委員; 尹基聖입니다. 거기에 제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반대되는 意見을 제가 提示하고자 합니다. 흔히 아무리 社會福祉 厚生施設이라 할지라도 物價와 너무나 동떨어

저서 어려운 現實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사실 이것을 上程했을 때 그 沐浴料 또한 主食 料金表를 보니까 지금 現實에 아주 동떨어진 그러한 價格으로 저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이 撤收를 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現體制에서 運營을 한다고 본다면 500원에 100%, 200%라야 이것이 %만 높지 실지 價格差異는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價格을 現實化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秉直 委員; 尹基聖 委員님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한번 물을게요. 거기에 그 利用하는 분들은 집이 없다는 點을 아셔야 되고 집이 없다는 點, 두 번째는 家族이 없다는 點을 아셔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勞動力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點을 아셔야 되고.....

○尹基聖 委員; 네, 다 理解가 갑니다.

○李秉直 委員; 다 理解 가지요?

○尹基聖 委員; 네, 다 理解 갑니다.

○李秉直 委員; 그러한 분들이 집에 갔을 때는 돈을 몇 푼 내놓고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안 받고 이렇게 보태주는 그런 性格일 것입니다, 表現을 하자면. 무슨 말인지 理解 가지겠어요?

○尹基聖 委員; 네.

○李秉直 委員;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는 形式上 돈을 받는 것이 밥값, 宿泊料, 沐浴料 이것을 제 값 따져서 이거 돈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形式上 이름만 이렇게 약간 걷는 그런 裏面이 있는 것이지 제대로 따져서 하려면 最小限度 삼류 호텔비 정도는 받아야지요.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거기에 대해서 保社局長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委員님 여러분들이나 저희 執行部 公務員들이

나 組織을 運營하고 하나의 豫算을 執行하고 施設을 管理하는데 있어서 最小限度 基本的으로 챙겨야 될 것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勤勞者들이, 勤勞者들입니다. 李委員님 말씀하시기를 勞動力이 없다는데 다 活動할 수 있는 勤勞者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나가서 活動을 하면 2萬원 내지 3萬원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市에서 저희들이 豫算을 投資해서 施設을 만들어서 우리 職員들을 配置해서 밥을 해주고 불을 때주고 하는 施設입니다. 그런 施設에 대해서 宿泊料를 200원 받는다, 白飯料를 160원 받는다, 沐浴料를 190원 받는다, 이런 狀態로 좀 어렵다고 放置했을 때 저희들 公職者로서 하나의 제대로 管理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質責하였을 때 이것은 완전히 甁개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現 水準으로 받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最小限度 하나의 管理를 하고 있다는 그런 誠意라도, 우리가 200원에서 560원 올리고 160원에서 320원 올리고 最小限度 行政公務員으로서 施設을 連營하면서 監督을 하면서 管理를 하고 있다는 誠意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水準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시다만 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委員님들께서 널리 諒解해 주시고 支援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그 施設에 있어서 利用할 수 있는 사람을 幅을 넓혀서 좀더 다른 面으로 支援할 수 있는 方法이라든지 해서 水準도 높이고 그 사람들이 보람감을 갖고 찾아오도록 保社局長도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諒解가 있으시기를 當付 말씀 올립니다.

○委員長 車奉五; 張柱昊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張柱昊 委員; 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거기다 勞働能力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때에 따라서 제가 그 區域에 있기 때문에 1·2年前, 2·3年前에 보면 거기서 어떤 나쁘게 평하면 뭐 불량한 사람들의 溫床이 된다고 이런 말도 있었습시다만 이렇게 볼 때 그에게 들렸을 때 職員이 하는 말이 形式上的의 그 飲食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 좀 먹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고기를 사다 구워도 먹고 말이야, 나가서 먹고 이런 能力이 있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보니까 沐浴施設, 宿泊施設은 어떤 어렵게 사는 달동네 貰房살이 보다 못지 않아요, 그 정도면 말입니다. 단 食生活이 밥에 찬 2個 콩나물하고 김하고 뭐 두부하고 뭐 하고 참 너무 간단하다, 이래서 나는 올리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올리면 기왕 2·300원 올려서 2·300% 이야기 나올 바에야 現實에 가깝게 올리고 찬이라도 한두 개 더 줄 수 없느냐, 名分을 같이 살릴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대로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말이지요. 그 사람들 이틀 삼일 만에 하루 이틀 일하고 하루 이틀 놀고 그 돈이 호주머니에, 또 支給할 수 있고, 그 가지고 있을 동안에 또 일 하러 잘 안 나간다 이겁니다. 그 職員들이 擔當하는 사람들이 깨워서 나가서 무엇도 하라고 이렇게 督勵를 하고, 또 저녁에는 술 먹고 들어와서 싸우고 말이야, 그 보니까 사실 그 날도 바둑인가 장기인가 두고 있는데 내가 먼 데서 보고 가까이 안 갔습시다만 우리 作業場에도 더러 많이 본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 3·4萬원 이상씩 받고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올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그래도 名分 한두 가지라도 반찬 더 좀 줄 수 없느냐 하는 次元입니다. 올리려면 기왕 現

實에 맞게 올리고…….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그런 關係는 제가 保社局長이 豫算當局과 協調를 해서 그런 方向이 될 수 있도록 最大한 努力을 하겠습니다.

○張柱昊 委員;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卓炯春 委員님.

○卓炯春 委員; 제가 現地를 가 보니까 우리가 땅이 한 800 坪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社會福祉施設로 땅을 資源을 效率的으로 活用을 하였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建物도 老朽化되어서 소위 勤勞者들이 安心하고 살 수 없는 施設이 제대로, 많이 낡았다, 아마 지은 지가 한 20餘年 以上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現代式으로 來年度 豫算에는 다른 福祉施設로 가서 勤勞者들이 물론 宿食도 할 수 있고 또 冊도 볼 수 있는 讀書室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超現代式으로 建物 높이도 높여서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資源을 좀 效率的으로 土地地價도 상당히 높은 그런 部分이 있는 것 같은데 效率的으로 活用해서 다른 社會福祉施設로 代替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李秉直 委員; 이 問題에 대해서는 충분히 對話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引上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느냐의 可否를 決定하는데 起立으로 可否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진 좀 찍어서 제가 그쪽 地域에 反對한 분들과 贊成한 분을 알려줄 것이 제 마음이니까 起立으로 기왕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아까 卓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에 答辯 말씀드리겠습니다.

現在 土地問題라든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해서 發展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方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委員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의 政策的인 方向으로 삼아서 現 位置에서 利用하는 사람들의 水準이라든가 앞으로 또 그 周邊에서 勤勞者들이라든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他施設 設置, 內容, 뭐 施設物이라든가 그런 것을 綜合的으로 判斷해서 다음 機會에 委員 여러분들께 좋은 改善方案이 있으면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秉直 委員; 제가 아까 起立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動議案입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金鍾源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鍾源 委員; 네, 金鍾源 委員입니다. 저희가 4次적에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이 以上에 대해서 우리 委員님들이 또 나갔다 오셨고 充分한 說明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市에서도 지금 3,852萬 2,000원의 收入의 增額을 위해서 이것을 올리자 하는 그런 쪽은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年 동안 이 施設 使用料를 그냥 놔두다가 갑자기 우리 常任委員會가 생겨서 第1案件으로 이 引上 적어도 180%로 引上案을 내놓았느냐 하는 그런 主張을 지난번에 하였습니다만 이 部分은 兩面性 이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없는 사람에 대한 福祉라는 側面에서는 그냥 놔두어도 되겠습니다만 또 지금 一部에 局限된 사람들한테만 惠澤을 준다는 그런 側面, 지금 소위 一部 入所者가 既得權을 主張하는 그런 側面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지금 引上幅이 너무 많다 이것을 금액으로 보면 200원 짜리가 400원 된 것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收容되

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勞動力이 있다고 볼 적에 하루 나가면 2萬원, 3萬원 버는데 한 달 거기 있어봐야 몇 千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主張하고 싶은 바는 지금 引上幅이 너무 많으니까 이 宿泊料를 지금 180%, 이것을 %로 본다면 엄청난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0원에서 한 400원 정도로 100%정도만 해주고, 또 白飯도 지금 160원짜리가 320원 이것도 역시 100%예요. 그래서 160원을 한 300원 정도 해 주고, 또 沐浴料도 저금 190원에서 320원 되는데 이것도 한 300원 정도 해 주고, 漸次的으로 한 번에 이것을 大幅 180% 이렇게 올려서 또 우리 福祉委員會가 제일 먼저 다루는 案件을 180% 올렸다 이러는 것 보다는 漸次的으로 今年에 조금 올리고, 또 내년엔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正式으로 動議..... 動議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李秉直 委員; 네, 動議를 제가 했어요.

○金鍾源 委員; 그럼 改議를 再請합니다.

○委員長 車奉五; 그러면 以上으로 質疑와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그러면 會議 通念上 改議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改議는 宿泊料 400원, 白飯料 300원, 沐浴料 300원 하자는 그러한 改議이고, 動議는 이 案을 否決하고 結局에는 그냥 來年度에 하자는 그러한 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改議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金鍾源 委員님이 改議하신 宿泊料 400원, 白飯食事代 300원, 沐浴料 300원 可한 분은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李秉直 委員님, 이거 올리지 말자, 凍結하자 하는 委員님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그러면 改議案이 可決되었습니다.

(議事棒 3打)

다음 進行합니다.

○李秉直 委員; 거기에 밥값도 올리자고 한 거예요?

○委員長 車奉五; 네.

○李秉直 委員; 지금 쌀이 남아서 지금 그리고 또 輸入 들어
오면 쌀이 많은데 그 사람들 공짜 주어도 지금 뭐할텐데 밥
값도 올리자는 말이야?

○委員長 車奉五; 다음으로 進行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立勤勞者厚生施設使用料徵收條例
中改正條例案을 宿泊料 400원, 白飯 300원, 沐浴料 300원,
決議되었음을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립노동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2. 地方公社江南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
出)

(10時 56分)

○委員長 車奉五; 議事日程 第2項 地方公社江南病院設置條例
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李浩助 保社局長님 나오셔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地方公社江南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委員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地方公社 江南病院은 77年 7月 2日字로 設立한 서울特別市立 江南病院을 82年 9月 30日字로 地方公社 江南病院으로 改編 發展시켜서 현재 26個 診療科 460病床으로 運營하고 있습니다. 서울特別市行政에關한特別措置法 廢止로 인하여 地方公企業法이 改正됨에 따라 關聯規定에 適合하도록 條例를 改正키 위하여 本 條例改正案을 提案하게 되었습니다.

改正의 內容을 말씀드리면 地方公社江南病院設置條例 第8條 病院長의 承認權者를 현재 國務總理에서 上位法規가 바뀜에 따라서 內務部長官으로 요식적으로 변경하는 事項입니다. 이 상으로 條例改正案 提案背景과 改正內容의 提案說明을 마치면서 審議過程에서 委員님 여러분께서 指摘해 주시는 事項에 대해서는 각별히 留意하겠습니다. 原案대로 通過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車奉五; 다음은 우리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南中; 專門委員 金南中입니다.

地方公社江南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關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行政에關한特別措置法 廢止와 서울特別市行政特別例에關한法律의 制定, 그리고 地方公企業法の 改正 등의 事由로 당해 地方公社 江南病院設置條例가 改正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改正案 외에도 改正되어야 할 事項이 있다고 認定되며 차제에 改正되어야 할 事項 전부

가 改正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特別市行政特例에間한法律과 地方公企業法 등의 規定에 地方公社의 定款과 長의 任命權이 모두 認可機關인 內務部長官에게 附與되어 있습니다. 地方自治時代를 정면 부인하는 듯한 자가당착적인 條項으로 이 條項의 改正을 國會 등에 建議할 必要性이 있으며, 現行 法令體系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事項은 改正을 檢討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現行 第5條 定款規定을 보면 2項에 「病院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는 市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고 지금 現行 條例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現行條例를 「病院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로 改正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根據로써는 地方公企業法 第56條 定款 條項에 보면 3項에 認可機關 즉 內務部長官의 認可가 必要하다고 規定되어 있습니다.

또한 第8條 病院長 및 任員 條項에 임기제한의 必要性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地方公企業法 등의 措置로 地方公企業法에 대한 市議會의 固有權限인 牽制·監視機能이 不可能하지만 그 長 및 任員의 任期條項을 改正하여 組織의 有機的 圓滑化를 촉구함과 동시에 責任經營의 定着化를 圖謀하고자 할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案에 대해서 質疑할 事項이 있으면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李秉直 委員님…….

○李秉直 委員; 李秉直 委員입니다. 地方公企業法 第56條 定款을 고치면 오히려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낫잖아요? 專門委

員 대답해 보세요. 第56條를 고치면 오히려 쉽지…….

○專門委員 金南中; 地方公企業法 規定의 定款變更에 대해서는 認可機關의 承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認可機關이 行政特例法이 廢止되기 전에 國務總理였었는데 그것이 內務部長官으로 變更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改正을 해야 될…….

○李秉直 委員; 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內務部長官의 인가가 어차피 하면 第56條 그것을 바꾸면 간단한 것을 지금 內務部長官 이름이 끼게 되게 되면 말이에요, 地方自治에 가장 沮害가 되는 要素가 그 內務部長官 끼는 것으로 인해서 저금 問題가 많은데 하다못해 이것까지도 內務部長官의 무엇을 맡는다손치면 하기가 總理하고 內務部長官하고 그것이 그것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때 認可할 때, 그러나 지금 市長님으로부터 內務部長官으로 넘어가는 이 段階는 많은 거부감이 오는데 그렇잖아요? 많은 거부감이 오히려 오지요?

○專門委員 金南中; 條例는 上位法律에 相馳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條例는 上位法律이 改正되고 廢止된 狀況 속에서 다른 部分만 改正이 되고…….

○李秉直 委員; 이 問題는 우리 委員 한분 한분이 充分한 檢討도 안 해 보았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음 會期로 留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우리가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우선 오늘 그 所管…….

○李秉直 委員; 난 內務部長官 이름이 낀다고 치면 아주 굉장한 거부감이 오는데, 現在 內務部長官이 地方議會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려고 研究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묶으려고 하는 努力型으로 지금 認識이 되어 있던 말이야.

○委員長 車奉五; 네, 保社局長님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上位法規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이事項은 要式입니다. 要式行爲기 때문에 委員님 다른 말씀 條例關係에 대해서 根本적으로 檢討할 事項은 委員 여러분들의 事項이나 그것은 別個이고, 이것은 다만 上位法規가 바뀔에 따라서 물려있는 물꼬를 거기에 따라서 터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그것하고는 關係가 없는 것임을 이렇게 理解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秉直 委員; 上位法規를 우리가 바꾸도록 努力해야지요.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네.

○李秉直 委員; 그것을 우리가 바꾸도록 해야지 거기서 줄줄 줄 오는 것까지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다 그냥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그것은 別個입니다. 이것은 上位法이 바뀔에 따라서 自動적으로 整理되어야 할 그런 事項으로.....

○李秉直 委員; 自動적으로 整理될 것을 왜 여기다가 이야기 해요?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그래도 節次는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李秉直 委員; 節次를 밟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허수아비 노릇을 할 必要는.....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用語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理解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秉直 委員; 內務部長官 이름이 낀다손치면 지금 서울市民이나 全 國民이 그 양반은 지금 地方自治를 發展을 안 시키

는 그런 분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름을 자꾸 침식케 하면 영 거북한데.....

○張柱昊 委員; 張柱昊 委員입니다. 改正을 해서 病院長의 任命權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네.

○張柱昊 委員; 任命權 關係, 그러면 總理가 任命을 하는 것이나 內務部長官이 任命을 하였을 때 우리 議會가 그러면 그 뒤에 追認이라든지 認准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그 關係는 條例에 規定된 方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條例改正權이라든가 그런 것은 委員님들 權限事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答辯드릴 事項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張柱昊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任命을 하면 우리한테 認准을 받느냐 이거지요.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현재 條例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張柱昊 委員; 그러면 올리기는 무엇하러 올립니까? 그대로.....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現在 法에 條例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張委員님이 理解를 하셔야 됩니다.

○張柱昊 委員; 아니, 任命을 하면 끝나는데.....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條例에 同意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任命하면 어떻게 끝납니까?

○張柱昊 委員; 아니, 條例를 그렇게 만들어서 任命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손을 못 대고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찬반논리를 한 번 논해 보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現行規定에 따

라서 거기에 하나의 그 上位法規가 바뀔에 따라서 거기서 지금 整理해 줄 것은 整理해 주는 節次를 委員님 여러분들 權限事項이기 때문에 거기에 權限事項으로써 節次를 밝아서 改正하는 內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다른 委員님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卓炯春 委員님.....

○卓炯春 委員; 9月 30日字로 江南病院長 任期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法에 의해서 다시 再任命을 받았지요?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그 規定에 任期가 3年이고 連任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卓炯春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任期가 끝난 病院長이 다시 再任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法에 根據해서 內務部長官으로부터.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네.

○卓炯春 委員; 뭐 條例改正 안 해도 하고 있었는데 꽤.....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그 間係는 確認해 보아야겠습니다.

○卓炯春 委員; 지금 條例改正 안고도 任命을 받았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그 任期가 언제까지입니까?

○卓炯春 委員; 9月 30日,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質疑를 했어요. 任期가 언제냐 그랬더니 14年 몇 個月 그 職에 있었는데 任期가 9月 30日 끝난다고 速記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月 30日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再任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病院長 職을 행사하고 있고. 그런데 이 法에 의해서 條例改正이 되기도 전에 法에 의해서 執行을 다 한거다 이겁니다. 안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등의

改正할 必要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張柱昊 委員; 아니, 이 法을 改正을 한다고 하면 제가 묻는 것은 任命을 하였을 때 우리 社會福祉委員會 可否를 물어서 그 認准을 받는다든지.....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하겠습니다.

○李秉直 委員; 局長님 이것이 우리 市民의 돈 가지고 지금 江南病院 運營하는 것이지요? 內務部長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 어떻습니까? 江南病院 運營이 서울市民의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內務部長官이 여기까지 이름을 넣으려구 해. 난 그 말도 안 되네.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그것은 法에 되어 있는 事項입니다.

○李秉直 委員; 法이라도.....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앞으로 그런 法 改正問題에 대해서는 別途로 委員님께서 努力을 하셔야 될 事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秉直 委員; 아니, 內務部長官하고 서울市民의 돈하고 무슨 關聯이 있습니까? 난 그것 참 理解가 안 갑니다. 쉽게 쉽게 이야기합시다.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그러니까 內務部가 地方自治 行政에 대해서 日本같은 데도 자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自治行政에 있어서 하나의 그 全國적으로 可能的한 衡平을 維持하고 均衡을 圖謀하고 하는 그런 業務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調整하는 機關이 必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見解에서 內務部の 役割로 보고 있고, 外國에도 그런 事項이 있다는 것을 委員님 여러분 李秉直 委員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秉直 委員; 지금 局長님 아주 제대로 바른 말 하셨네요.

內務部長官이 關聯되는 것은 全國的인 施行이 要할 때, 이럴 때는 內務部長官이 關聯되지만 江南市立病院은 서울市에 局限된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理解가 안 되는데요.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面으로 보면 제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理解하실 것입니다.

○李秉直 委員; 江南市立病院에 患者를 지금 釜山에서 이렇게 이송시키는 것 아니에요. 서울市에 局限된 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內務部長官 이름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길바닥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물어도 이것은 좀 理解가 안 될 것 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李委員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張柱昊 委員; 그래서 말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울市長이 推薦을 해서 우리 委員會에 認准을 받는다든지 이런 次元에 무언가 우리 市議會의 認准을 받아서 運營이 된다 하면 좀 理解가 가겠는데, 서울市 財産. 서울市 권한 안에 있는 것을 內務部長官이 그것은 좀 그런 點이 있네요.

○保健社會局長 李浩助; 네, 張委員님 말씀에 대해서 答辯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基礎地方自治團體, 또 市議會 이제 겨우 발걸음을 해서 금년 한 해를 넘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기틀이 더욱 굳어지면서 그러한 事項들이 發展的으로 定立이 되고 定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이 事項은 要式事項이니까 委員님 여러분께서 널리 理解를 해 주시기를 當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要式行爲 以前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答辯을 하세요」 하는 委員 있음)

그것은 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事項이기 때문에 이것은 理解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法에 의해서 條例가 이루어진 事項이고 거기에 따라서 委員님들이 모인 會議關係가 開催되기 때문에 機會에 이 節次를 밝는 事項으로 理解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朴光勳 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勳 委員; 네, 朴光勳입니다. 江南病院改正條例案은 李秉直 委員 말씀대로 充分히 事前에 檢討를 우리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充分히 檢討를 해서 다음 會議에 다룰 것을 정식으로 動議합니다.

(「네, 贊成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車奉五; 다른 委員 말씀 안 계십니까? 네. 金鍾源 委員님.

○金鍾源 委員; 지금 이 事項은 그간에는 서울市行政에 관한 特例法이라고 하는 무슨 法이 있었습니다. 그 法이 이번에 廢止되고 지금까지 國務總理가 行使하던 모든 權限이 內務部長官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上位法이 바뀌다보니까 어차피 이 法도 修正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趣旨에서 條例改正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病院長 任期를 3年 계속 連任한다, 아까 우리 卓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9月 30日이 任期滿了가 되었는데 16年을 繼續하고 있다 하는 그런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第8條 任員의 任期에 관해서는 기이 저희 서울市 條例改正特別委員會에서 檢討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서 檢討가 되면 저희 常任委 쪽으로 넘어올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오

늘 지금 執行部에서 넘어온 國務總理를 內務部長官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承認을 해주고, 任期에 관한 事項은 앞으로 다시 特別委員會에서 넘어올 적에 저희가 深度있게 다루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李秉直 委員;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公企業法人가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제대로 고치자고 우리가 建議를 해야지, 지금 위에서 이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下部에서 바른 말을 안 하면 군사독재 옛날과 무엇이 다르냐 말이야. 옛날과 무엇이 달라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정말로 그 中央集權에서부터 이렇게 쪽 내려오는 그 矛盾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時間 아깝게 뭐 여기 나올 必要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反問드리고 싶어요. 內務部長官님이 이것 말고도 關與될 部分이 많은데 말이야, 우리 서울시에 하는 일까지.....

江南病院 이것이 누구 돈이야, 누구 돈이야, 이것이. 우리 市民의 돈 아납니까? 院長이든지 우리가 모두 管理하는 것이 우리 市民이 되지. 뭐 이것까지 內務部長官이 여기 關與해요? 나 이것 도대체 理解가 안 갑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市民의 代表 資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알아보고 檢討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委員長 車奉五; 또 다른 委員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質疑와 討論은 終結하겠습니다.

그러면 會議法 慣例上 成案된 案을 묻겠습니다. 먼저 이 案 역시 國務總理에서 內務部長官으로 變更하려는 그 內容 地方 公社公企業法 廢止에 따라서 關聯된 規定에 合法하도록 改正

하는 이 內容이 이 原案입니다. 그러니까 具體的인 것은 앞으로 條例審議를 지금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 때에 細部的인 것을 그 條例 規定에 의해서 따르기로 하고, 기이 執行되고 있는 역시 地方自治法에 의해서 國務總理 所管을 內務部長官 所管으로 移行된 이 母法에 따라서 지금 江南公社에 대한 이 原案대로 받자는 그러한 動議지요? 그러한 動議가 있고, 그 다음에 改議는 무엇입니까?

○朴光勳 委員; 차후로 미루자는 動議를 제가 먼저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可否를.....

○李秉直 委員; 우리가 너무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 朴光勳 委員의 말씀은 들러리만 그 로봇, 허수아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자리만 메꿔줄 必要性이 없지 않느냐, 좀더 研究 檢討하자 하는 그러한 動議案입니다. 거기에 贊成이 나왔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이제 이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가 慎重하게 現實을 잘 직시해서 우선 運營의 묘를 기하는 이런 側面에서 理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드렸습시다만 지금 現在 우리가 超黨的으로 지금 條例審議委員會가 지금 稼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具體的인 것은 거기에서 確實하게 이제 規定이 나올 것이고, 오늘 回附된 이 案件은 기이 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法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委員長님 말씀 좀 中斷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그러니까 그런 次元에서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直 委員; 요는 무언가 하면 우리가 이것이 比重이 크든 작든 간에 고사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러리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또 우리 잘 모른다 이야기야, 이 部分에 대해

서. 事事件件이 지금 內務部長官이 침식하게 되면 지금 서울市長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朴光勳 委員; 아니, 그걸 떠나서 일단 動議案을 내셨으니까요.....

○委員長 車奉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案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內容을 잘 모르니까 內容을 좀더 深思熟考해서 다음에 한 번 또 이렇게 모여서 議論하는 方向으로 하자는 그러한 動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金鍾源 委員님 이것을 諒解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改議는 없는 것 같습니다.

○金鍾源 委員; 金鍾源 委員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朴光勳 委員님이 이 事項은 더 좀 檢討해서 다음 會期에 다루자는 動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李秉直 委員이 贊成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장하였던 것은 지금 서울特別市行政에關한特例法이 廢止가 되었어요. 그간에는 서울시 行政 모든 事項이 國務總理의 지시를 받던 事項인데 그 特例法이 廢止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內務部長官으로 自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條項은 自動的인 上位法이 改正되었기 때문에 自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要式行爲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執行部 說明을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 지금 病院 院長의 任期, 其他 등등의 事項은 지금 우리 超黨的으로 與·野들이 모여서 條例改正特別委員會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루어서 深度있게 檢討된 후에 저희 常任委에 넘어올 적에 우리도 한 번 더 深度있게 檢討를 해 보자, 그러나 오늘 기이 上位法이 改正이 되어서 이 下位 條例가 改正되는 部分은 通過시켜 주자하는 改議를 제가 主張한 것입니다.

○李秉直 委員;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上位法이 바뀌어서 우리가 形式的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通過시켜주자 하는 이야기가 提案者의 說明이라든지 金幹事의 이야기는 그건데, 이것이 바로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못마땅하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의 形式的으로 우리가 해 달라는 自體가 이게 못마땅한 것이고, 上位法이라 해서 우리의 地方自治에 沮害되는 것까지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金鍾源 委員; 그런데 그건 그런 側面으로 理解를 하셔야 돼요. 저금 서울市에 關한 行政이 國務總理에서 內務部長官 쪽으로 移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李秉直 委員; 總理室에서 막바로 市長으로 내려와야지 왜 內務部를 거쳐서 가느냐 이 이야기야, 나는.

○金鍾源 委員; 네, 그 과정은 우리들이 할 事項이 아니고 우리 市議員들은 條例改正을 할 수 있는 權限은 있어도 이 母法, 國會에서 다루어야 될 法은 우리가 改正할 수 있는 그런 權限이 없습니다. 단, 우리는 앞으로 江南病院에 대한 條例改正하는 과정에서 任員의 任期條項, 소위 第8條 條項을 저희 市議員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部分이지요. 그러나 母法 自體를 우리가 다루지 못하니까 그것은 此後에 우리가 檢討를 해서.....

○李秉直 委員; 우리가 拒否를 함으로써 母法에 그 어디서 하든지 거기서 바뀌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고쳐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줄줄이 다 따를 수 있나.

○委員長 車奉五; 이제 그것을 우리 職務의 限界를 분명히 理

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을 원만히 잘 進行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條例는 부득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立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나 하면 이미 法은 이미 決定 다 되었어요.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고 안 되고 執行하는 것은 사실 이게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要式行爲만은 갖춰야 된다 이것입니다. 法은 이미 確定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否決해도 안 되고 그것은 執行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次元에서 理解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自體 條例에 任期條項, 뭐 그 자잘한 連任條項 등등은 현재 條例審議委員會에서 檢討 중이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決定되는 대로 따르면 되겠고, 단지 오늘 이것은 이미 法에 의해서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國務總理 하던 것이 內務部長官 所管으로 이미 法에 되었어요. 그래서 進行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否決하더라도 이것은 進行이 될 것입니다. 그런 次元에서 이것을 理解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것을 반대해서 否決시키면 否決시킨 대로 執行이 可能하느냐, 이건 不可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次元에서 理解해 주면 좋겠고.....

(「表決에 부칩시다」 하는 委員 있음)

단지 이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內容이 확실히 모르니까 더 알고 하자, 다음에 미루자 하는 그러한 案이 사실 또 나오는 立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모이더라도 內容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朴光勳 委員님 알아봐야 그 內容입니다. 다른 거 알아봐야 그 內容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理解해 주시고.....

○李秉直 委員; 다음에 하는 것하고 오늘 하는 것하고는 엄청

난 差異가 있습니다. 比重이 있습니다. 지금 總理室에서 市長이 할 일은 市長으로 이렇게 막바로 넘어오고, 內務部에 全國的인 것이 되는 것은 거기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事事件件이 內務部를 거쳐서 오고 말이죠, 이러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에 여기 그냥 要式的으로다가 한 다손치면 이것에 부칠 意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도 舉論되고, 또 우리 委員會뿐 아니라 다른 委員會에서도 어떠한 問題가 나왔을 적에 그냥 옛날 무언가 獨裁政權에서 흐르는 스타일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그런 식으로다가 남아 온다면 이거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찮든 比重이 없든 간에 우리 委員會에서 목소리라도 높이고 우리가 이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輿論이 되고, 또 이런 것이 번져나갈 때 이 때에 內務部長官도 좀 신경을 쓸 것 같고 그래야만 內務部長官도 地方自治에 대한 發展시키려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比重에서 한 마디라도 더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理解해 주시고, 우리 朴光勳 委員님 아까 좋은 생각하셨음을 아주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또 贊成 發議합니다. 留保!

○委員長 車奉五; 네, 역시 朴光勳 委員님 한번 이야기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알아봐야 內容이 그것인데요. 다시 이것을 時間을.....

○李秉直 委員; 아니, 委員님이 이렇게 유도를 하시지 말고, 애들을 왜 자꾸 꼬셔!

○委員長 車奉五; 時間을 다음에 다시 우리 모여서.....

○卓炯春 委員; 委員長님! 자꾸 委員長님이 說得시켜서 그렇게 할 問題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체 스스로 여러 가지 問題를 우리가 한 번 解決해 보자 하는 아마 그런 李委

員 意志같은데 제가 主張하였던 것은 이 母法에 의해서 기이 執行이 되어 왔었는데 要式行爲를 위해서 지금 條例를 改正해 주자 그것인데, 지금 기이 母法이 執行되어 왔고 條例는 改正하나 안 하나 그대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一括해서 아까 金鍾源 委員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條例特委에서 우리 改正되어 오면 여기에서 또 深度있게 다시 상의하고 또 서울시가 우리 진정한 地方自治를 위해서 우리가 얻어와야 할 것은 다 얻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母法을 改正을 建議를 하는 立場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 우리 條例 改正 안 해도 지금 너희들 맘대로 母法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깐 우리 立場은 우리 立場대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常委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本會議에서 다루어야 할 問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委員長께서는 委員들을 說得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司會를 止揚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車奉五; 말씀 內容은 거의 同感입니다. 우리가 地方化로 가는 그 過程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內容입니다. 그러니까 이 母法이 改正되지 않는 한 이것은 부득이 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미 이 條例는 그냥 通過시켜 주고 母法을 地方自治法을 改正하는 데에 우리가.....

○李秉直 委員;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이것을 다 通過시켜 주고 무슨 母法을 고쳐요? 이것은 通過 안 시키고 母法을 고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總力을 다 합시다.

○委員長 車奉五; 그것은 이 案件은 또 別途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이고.....

○張柱昊 委員; 委員長님! 지금 動議案만 들어왔지요?

- 金鍾源 委員; 改議까지입니다.
- 張柱昊 委員; 改議까지 들어왔어요?
- 委員長 車奉五; 이것은 內容은 같아요. 內容은 같으니까 같이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 張柱昊 委員; 아니 그러면 저 動議는 留保하자, 다음에 研究해서 하자..... 또 改議도 留保하자 그럼 再改議 제가 낼게요.
- 委員長 車奉五; 朴光勳 委員님 動議 쪽에서 한 말씀.....
- 朴光勳 委員; 자세히 檢討는 못 해 보았습니다만 어차피 上位法에 의한 要式行爲라면 이것은 承認해 주시고, 이 다음에 第8條 任期關係 그 때에 深度있게 그것에 대해서 하고 제가 動議案을 정식으로 撤回합니다.
-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委員長 車奉五;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質疑하고 討論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또 느끼고 배웠습니다, 또 알았구요. 이렇게 討議하는 가운데 사실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 안 이상에는.....
- 李秉直 委員;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自尊心을 가지세요.
- (「再改議案을 내면 되지요?」 하는 委員 있음)
- 再改議 할 必要는 없고.....
- 그러면 正式으로 이것을 다.....
- 李秉直 委員; 記錄에 남기기 위해서 本 李秉直 委員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表決에 부칠 것을 動議합니다.
- 委員長 車奉五; 이미 成案은 되었습니다. 다 確實히 알았기 때문에 받자는 그러한 動議이고, 改議는 保留하자는 改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네, 保留하는 게 改議입니다. 그러면 그런 側面에서 우선 改議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이것을 保留하자는 改議입니다. 찬성하면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이 原案대로 받자는 委員은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그러면 通過되었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地方公社江南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3. 199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1時 30分)

○委員長 車奉五;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감사합니다. 오늘 執行部 여러 局長님 이하 關係官들 바쁜 時間 많이 參席하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監査結果報告書는 이미 配布해 드린 油印物과 같습니다.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8條에 의거 議長에게 提出하여 本會議에 報告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監査報告書를 原案대로 可決을 하려고 하는데 그 內容을 잘 보시고 決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秉直 委員; 이것을 꽤 미리 보내주면 안 되었습니까? 미리 보내주었으면 안 되느냐,理由가 있냐구요.

(「이것을 오늘 通過시켜야 됩니까?」 하는 委員 있음)

네,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모여서 하기는 좀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內容을 檢討하고, 우리 監査한 內容이니까 보시면 금방 理解가 다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內容을 보시고 決定해 주시면 本會議에 回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참 번거로울 것 같고.....

○金鍾源 委員;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 번 檢討해 볼 수 있는 時間 餘裕를 주어야지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額數를 그냥 지금 잠깐 보고 이것을 通過시켜 달라 하는 이야기는 이 會議進行에 問題가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차피 23· 24· 26日 지금 常任委員會 開催日程이 있어요.

(「다음에 해야지요」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車奉五;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檢討하고 나서 다음에 한 번 모여서 한다면 다시 召集을 해서.....

○金鍾源 委員; 우리가 23· 24· 26日 어차피 常任委인데 3日間 지금 日程이 잡혀 있으니 그 중에서 하루만 하자, 하루만.....

○委員長 車奉五; 네, 여러 同僚委員님들께서.....

○張枉昊 委員; 다음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날짜가 어느 날인가, 23日 아십니까?

○金鍾源 委員; 23· 24· 26日이 常任委 日程으로 잡혀있고, 27· 28· 30日이 本會議 日程으로 잡혀있어요.

○張柱昊 委員; 그러면 23日 나와서 그 동안 檢討해서 23日 이것을 잠시 이야기 나누면 뭐 알아야 이야기 나누고 할 것 아닙니까?

○委員長 車奉五; 23日 時間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張柱昊 委員; 23日이든지 24日이든지 25日까지 3日間 또 常任委 會期中이면 그 사이에 한번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3日 하루 나오지요」 하는 委員 있음)

○專門委員 金南中; 事務監査 結果報告書를 원래 委員님들이 다 만드셔서 이것은 嚴密하게 따지면 作成小委가 構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委員님들이 각 委員님마다 事務監査 結果報告書를 만드셔서 作成小委에 제출하시면 小委에서 만들어서 小委가 委員會에서 開催해서 委員會에서 報告하고 거기서 通過하든지 削除하든지 添加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時間的 餘裕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水曜日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委員님들 發言하신 것을 제가 다 要約한 것 가지고, 그리고 執行部에서 提出한 資料하고.....

○委員長 車奉五; 네, 張柱昊 委員님.

○張柱昊 委員; 張柱昊 委員입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가지고 가서 그래도 專門委員님 말씀을 들으니깐 빨 수 있는 것은 빼야 되고 더 添加해서 넣을 것은 넣어야 된다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檢討해서 23日날 모여서 小委員會 特別히 構成할 必要도 없고, 꼭 넣어야 될 것 있으면 몇 가지 더 넣고 빨 거 있으면 削除하고 議決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합시다라는 動議案을 냅니다.

○委員長 車奉五; 그러시면 이렇게 理解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이것을 檢討하시는 時間을 가져서 油印物 內容을 가지고 가셔서 檢討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26日 한 번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尹基聖 委員; 尹基聖입니다. 이왕이면 監查報告書만 저희들이 檢討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豫算案 審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같이 어떻게 併合해서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點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車奉五; 이제는 다 回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尹基聖 委員; 지난번에 議決한 대로 本會議에 그대로 넘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진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車奉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그러한 性質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손에서 떠났습니다.

○尹基聖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다시 檢討해서…….

○委員長 車奉五; 그러면 檢討를 해 주시고요. 26日 午前 10時에 잠깐 召集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參席해 주셔서, 成員이 오늘도 간단히 되었는데 오늘 參席한 同僚委員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參席해 주시고, 오늘 缺席하신 同僚委員들께 꼭 말씀하셔서 26日 10時에 꼭 成員이 될 수 있도록 協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는 전부 이것으로 散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1時 37分 散會)

○出席委員

車奉五	金鍾源	李秉直	李昌根
張柱昊	韓相炫	李仙姬	朴光勳
鄭一龍	金演洙	林承后	柳光司
康明秀	尹基聖	卓炯春	

○專門委員

金南中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 李浩助